

마태 9

- 1. 왕께서 마비 병 환자를 고치심.....1
- 2. 왕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심.....3
- 3. 금식 논쟁.....4
- 4. 왕께서 치리자의 딸을 살리시고 여인을 고치심.....5
- 5. 왕께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심.....8
- 6. 왕께서 말 못 하는 자를 고치심.....8

1. 왕이 마비 병 환자를 고침

(마 9:1) 그분께서 배에 오르 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

(마 9:2) 보라, 그들이 마비 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, 아 들아, 기운을 내고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, 하시니라.

(마 9:3) 보라,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,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, 하니

(마 9:4)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,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?

(마 9:5) 네 죄들을 용서받을 지어다, 하고 말하는 것과, 일어나 걸어가라,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

(막 2:1)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

(막 2:2)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매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.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 선포하시더라.

(막 2:3) 그들이 한 마비 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.

(막 2:4)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의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 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리거늘

(막 2:5)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 병 환자께 이르시되, 아 들아,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, 하시니라.

(눅 5:17) 어느 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모든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곁에 앉았는데 [주]의 권능이 거기 있어 그들을 고치더라.

(눅 5:18) ¶ 보라, 사람들이 마비 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안으로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

(눅 5:19)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거늘

(눅 5:20)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

우냐?

(마 9:6) 그러나 사람의 [아
들]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
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
알게 하려 하노라, 하시고
(그때에 마비 병 환자에게 이
르시되,) 일어나 네 자리를
들고 네 집으로 가라, 하시매
(마 9:7) 그가 일어나 자기
집으로 떠나가거늘
(마 9:8) 무리들이 그것을 보
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
람들에게 주신 [하나님]께 영
광을 돌리니라.

(막 2:6) 그러나 서기관들 중
의 어떤 자들이 거기 앉아서
마음속으로 따져 보며 이르되,
(막 2:7) 이 사람이 어찌하여
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
느냐? 오직 [하나님] 외에 누
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?
하더라.

(막 2:8) 예수님께서서 그들이
속으로 그렇게 따져 보는 줄을
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
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어찌
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
져 보느냐?

(막 2:9) 마비 병 환자에게,
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, 하
고 말하는 것과, 일어나 네 자
리를 들고 걸어가라, 하고 말
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
우냐?

(막 2:10) 그러나 사람의 [아
들]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
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
하려 하노라, 하시고 (마비 병
환자에게 이르시되,)

(막 2:11) 내가 네게 이르노
니,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
길로 네 집으로 가라, 하시매

(막 2:12) 그가 즉시 일어나
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
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
[하나님]께 영광을 돌리며 이
르되,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
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, 하
니라.

되, 사람아, 네 죄들을 용서
받았느니라, 하시니라.

(눅 5:21) 서기관들과 바리새
인들이 따져 보기 시작하며
이르되, 신성모독하는 말을
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? 오
직 [하나님] 외에 누가 능히
죄들을 용서하겠느냐? 하거
늘

(눅 5:22) 예수님께서서 그들의
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
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마
음속으로 무엇을 따져 보느
냐?

(눅 5:23) 네 죄들을 용서받을
지어다, 하고 말하는 것과,
일어나 걸어가라, 하고 말하
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
우냐?

(눅 5:24) 그러나 사람의 [아
들]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
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
알게 하려 하노라, 하시고
(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,)
내가 네게 이르노니, 일어나
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
가라, 하시매

(눅 5:25) 그가 즉시 그들 앞
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
것을 들고 [하나님]께 영광을
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가
니

(눅 5:26) 그들이 모두 놀라
[하나님]께 영광을 돌리며 두
려움에 차서 이르되, 우리가
오늘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,
하니라.

2. 왕이 세리 마태를 부름

(마 9:9) ¶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, 나를 따르라,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.

(마 9:10) ¶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, 보라,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

(마 9:11)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,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? 하거늘

(마 9:12)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,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.

(마 9:13) 오직 너희는 가서,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,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.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, 하시니라.

(막 2:13)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시매 온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드니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.

(막 2:14) 그분께서 지나가시다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, 나를 따르라,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.

(막 2:15)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.

(막 2:16)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,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? 하매

(막 2:17)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,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, 하시니라.

(눅 5:27) ¶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, 나를 따르라, 하시니

(눅 5:28)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.

(눅 5:29)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.

(눅 5:30)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,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? 하매

(눅 5:31)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,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

(눅 5:32)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, 하시니라.

3. 금식 논쟁

(마 9:14) ¶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,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? 하매

(마 9:15)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?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.

(마 9:16)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.

(마 9:17)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.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, 하시니라.

(막 2:18)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. 그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,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? 하매

(막 2:19)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?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.

(막 2:20)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.

(막 2:21) 또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겹치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메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.

(막 2:22)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리라.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, 하시니라.

(눅 5:33)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,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? 하매

(눅 5:34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?

(눅 5:35)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, 하시니라.

(눅 5:36) 또한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, 아무도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또 새 옷에서 떼어 낸 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.

(눅 5:37)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.

(눅 5:38)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.

(눅 5:39)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즙을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, 묵은 것이 더 좋다, 하기 때문이니라, 하시니라.

4. 왕께서 치리자의 딸을 살리시고 여인을 고치심

(마 9:18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, 보라, 어떤 치리자가 나아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,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.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, 하매

(마 9:19) 예수님께서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그리하더라.

(마 9:20) ¶ 보라,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

(마 9:21)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,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, 하였기 때문이더라.

(마 9:22)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, 딸아, 안심하라.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,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.

(마 9:23) 예수님께서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사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

(마 9:24) 그들에게 이르시되, 물러가라.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,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.

(마 9:25)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사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

(막 5:21) 예수님께서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닷가에 가까이 계시더라.

(막 5:22) 보라, 회당의 치리자들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

(막 5:23)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,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.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, 하매

(막 5:24) 예수님께서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.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.

(막 5:25)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

(막 5:26)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

(막 5:27)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

(막 5:28)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,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, 하였기 때문이더라.

(막 5:29)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르매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

(눅 8:40) 예수님께서서 돌아오실 때에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.

(눅 8:41) ¶ 보라,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아왔는데 그는 회당의 치리자더라.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실 것을 구하니

(눅 8:42) 이는 그에게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운 채 죽어갔기 때문이더라.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.

(눅 8:43) ¶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

(눅 8:44)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에게서 피 나오는 것이 멎으니라.

(눅 8:45)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,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?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에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르되, 선생님 이여, 우리가 선생님께 몰려들어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,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, 하고 말씀하시나이까? 하매

(눅 8:46)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, 누가 내게 손을 대어도

(마 9:26)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.

몸으로 느끼니라.

(막 5:30)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,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? 하시니

(막 5:31)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, 무리가 주께 밀려드는 것을 보시면서,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, 하고 말씀하시나이까? 하되

(막 5:32) 그분께서는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

(막 5:33)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아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.

(막 5:34)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, 딸아,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네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, 하시니라.

(막 5:35)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,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.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? 하거늘

(막 5:36)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되,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, 하시며

(막 5:37)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

(막 5:38)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 가사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

다.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을 내가 아노라, 하시니

(눅 8:47) 여자가 자신을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아와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까닭과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께 밝히 알리거늘

(눅 8:48)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, 딸아, 안심하라.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, 하시니라.

(눅 8:49) ¶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,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.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, 하거늘

(눅 8:50)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,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. 그리하면 네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, 하시고

(눅 8:51)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.

(눅 8:52)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소녀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였으나 그분께서 이르시되, 울지 말라.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, 하시니

(눅 8:53) 그들이 소녀가 죽은 것을 알므로 그분을 비웃더라.

(눅 8:54)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, 소녀야 일어나라, 하시니

고

(막 5:39)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?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, 하시니

(막 5:40)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.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사

(막 5:41)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, 딸리다굼,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, 소녀야, 내가 네게 이르노니, 일어나라, 는 뜻이라.

(막 5:42)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이는 그녀가 열두 살이었기 때문이더라.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

(막 5:43)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.

(눅 8:55) 소녀의 영이 돌아와 소녀가 즉시 일어나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.

(눅 8:56) 소녀의 부모는 놀랐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.

5. 왕께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심

(마 9:27)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, 다윗의 자손이여,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, 하더라.

(마 9:28)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아오더라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?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, [주]여, 그리하오이다, 하매

(마 9:29)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,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, 하시니

(마 9:30)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,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, 하시더라.

(마 9:31)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그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.

6. 왕께서 말 못 하는 자를 고치심

(마 9:32) 그들이 나갈 때에, 보라, 그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

(마 9:33) 그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무리들이 놀라며 이르되, 이스라엘에서 결코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, 하나

(마 9:34) 바리새인들은 이르되,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, 하더라.

(마 9:35)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.

(마 9:36)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.

(마 9:37)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,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

(마 9:38)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[주]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, 하시니라.